

統合된 性格의 特性에 관한 一考察

— 構造論的 觀點에서 —

高明奎*

〈 목 차 〉

I. 序 論	5. Baldwin의 통합이론
II. 統合된 性格의 定義	6. Lecky의 통합이론
III. 統合의 心理學的 構造論	IV. 示唆된 統合된 性格의 特性
1. Freud의 통합이론	V. 結 論
2. Berne의 통합이론	參考文獻
3. Lewin의 통합이론	Abstract
4. Allport의 통합이론	

I. 序 論

인간은 원래 A성질 아니면 B성질을 가진 존재라고 간단히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존재이다. 성격 내에는 상반되는 두 개 이상의 특성이 존재하여 서로 拮抗하고 갈등하며 상쇄하며 충돌이 발생하여, 성격은 바로 이러한 諸力간의 균형과 조화 속에서 형성된다. 즉, 한편에 긍정적 性格 因子가 인정된다면, 반드시 같은 성격내에 부정적 성격인자가 前者를 억제하는 입장을 취하며, 이들 兩者의 상호관계 속에서 성격이 개성적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심리학적 측면에서 명료하게 나타난다. 內分泌腺系에 있어서 뇌하수체전엽 호르몬과 송과선 호르몬, 부신에서의 아드레날린과 취장의 인슈린, 性腺에서의 남성호르몬과 여성호르몬이 서로 상반하는 기능을 지속하여 體液環境全體로서의 평형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그 한 예이다. 때로는 한 편이 우위에 서고, 다른 편이 지배적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개체가 건강한 이상, 그것은 극단적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교수

으로 균형을 파괴하여 회복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일은 없다. 평형→평형의 붕괴→평형 회복이라는 생리학적 과정은 일정한 시간적 경과를 거치며 반복되면서, 성격에 특유한 생리학적 리듬을 주고 있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異質的 [子의 대립과 맞버림은 단지 생리적 측면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며, 心理的 側面에서도 성격은 이런 양극적인 경향을 띠면서 구체적 특성이 전개되어간다. Kretschmer의 분열성 기질 대 조울성 기질과 Jung의 외향적 성격 대 내향적 성격(鈴木乙史 外編, 1985) 등 수많은 性格學說에서 이질적인 성격인자를 相互牽制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성격이 형성된다는 사실에서도 이것은 입증된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는 이러한 생리학적·심리학적 自己矛盾은, 그 자체가 결코 성격의 분열이나 괴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비록 이율배반적 양극성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이에 辨證法的 統一을 주는 성격인자가 嚴存하는 한, 인간은 파국에 빠지는 일은 없다. 즉, 인간성이 갖는 모순과 대립은, 그 공통적 기반위에서 兩者의 共存을 가능케 하는 統合的作用에 의해서 극복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 통합의 작용에도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초월한 분열은 성격에 병리적 경향을 띠게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統合作用이 강력하면 상당한 정도로 성격 내의 대립요소에 통일과 조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역으로, 강력한 통합성을 지닌 건강한 성격일수록 어떤 정신장애를 겪는 일이 없고, 성격 내의 모순과 갈등을 잘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건강한 성격이란 마음 속에 전혀 용납될 수 없는 대립적 요소를 내포하면서, 거기에 통일과 조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인간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 정체모를 善意와 神과 같은 숭고성을 지니면서 다른 일면에서는 惡魔와 같은 귀신(demon)을 겸비하여 겉으로는 보통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하고 다면성을 지닌 성격, 아니 고뇌와 갈등 속에서 나날을 보내면서, 내면생활의 끊임없는 질풍노도(strum und drang)속에서 오로지 의미있는 인생을 계속 추구하는 강열한 意識體驗의 所有者, 바로 이러한 건강한 인간은 모두 그 성격 내에서 볼 수 있는 대립적 경향의 격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성격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데서 지칭된 人間像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건강한 인간의 모습인 성격의 통합성이란 어떻게 정의되며, 또 그것은 심리내부에서 어떠한 역동적인 작용을 나타내는가 즉, 심리학적 구조에 대한 대표적인 학자에 의한 해명을 고찰한 후, 이 설명에서 시사하는 몇 가지 공통적인 통합된 성격의 특성을 제시하는 것을 研究의 主眼點으로 한다.

II. 統合된 性格의 定義

성격의 통합성에 대한 定義는 여러 가지로 내려지고 있다. 여기서는 관점이나 기준 없이 몇몇 대표적인 전문가들의 정의만 소개하기로 한다.

Good(1945)는 “개인의 주요한 행동과 가치가 갈등하지 않고 서로 보충하고 완전히 되는 상태, 혹은 개인의 주요한 행동과 가치가 서로 질서지워지고 강화되는 과정”(p.221)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는 갈등이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또 Klein(1944)는 “관념 · 충동 · 습성 · 습관 기타 성격을 구성하는 제 특성이 단일화되고, 조화롭게 밀접히 관련된 반응형태의 체계로 조직화된 것”(p.482)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Shaffer(1936)는 “통합이란 습관 · 지각 · 동기 · 정서가 완전히 질서지워지고 유효한 적응을 가져오는 개인의 상태”(p.382)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들은 모두가 결국, Monroe(1950)가 교육연구사전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주어진 全體性에서 각 부분이 다른 부분과 조화를 이루어 전체활동의 지배적 형식을 추진하도록 작용하는 한편, 동시에 전체는 각 부분에 의한 행동을 자기의 지배적 형식과 일치하는 형태로 추진하도록 작용하는 한, 統合은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p.593)라는 내용을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다음에는 대표적인 정의들에 내포된 통합된 성격에 대한 含意 즉, 일반적 성질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된 성격에 있어서는 지배적인 행동체계는 언제나 하나이며, 그것은 행동통제를 잘 한다.

이는 한 성격 내에 많은 행동체계가 존재하여 상황에 따라 수많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도 이러한 것을 통일하는 지배적 행동체계는 언제나 단 하나로서, 행동체계간에 모순과 항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상태를 말한다. 또 비록 두 개 이상의 같은 정도의 행동체계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것이 동일한 방향을 지향해서 서로 모순되는 일은 없고, 오히려 서로 보충하는 관계에 있다.

둘째, 통합된 성격은 두 개 이상의 행동체계에서 언제나 선택능력을 곧잘 발휘한다.

이는 문제상황 혹은 위기적 장면에서 전체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가치대상을 서로 비교 검토한 후, 엄밀한 가치판단에 의해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는 행동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격에서는 행동도 원활민속하며, 갈등상황에 있는 성격에서 볼 수 있는 행동의 振子反應(oscillation)과 遲延(procrastination)을 인정할 수 없다.

셋째, 통합된 성격은 동시에 많은 욕구만족을 바라지 않는다.

이는 말을 바꾸면, 많은 행동체계가 同時發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욕구를 만족시킨 후에 다른 욕구의 만족을 위해 나아간다. 공간적 장면에서의 양자택일적 상황에서 時間次子를 도입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통합된 인간이 가진 知性이다. 또, 이와 같은 해결이 불가능한 절대적 상황에서는 한 욕구의 만족만을 구하고, 다른 것은 모두 이의 만족을 버린다. 이것은 역으로 두 개 이상의 곤란한 장면에 만났을 경우, 한 쪽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한 쪽의 고통을 참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욕구의 만족에 고통이 따르는 상황에서도 일정 시간 내에서 고통을 견디어 욕구만족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욕구를 단념해서 고통을 회피할 것인가, 그 어느 쪽인가의 명확한 행동이나 태도를 나타내며, 거기에 의심하고 주저하는 일은 적다.

어쨌든, 통합된 성격의 행동은 커다란 시간적 洞察과 강력한 자아의 抑制力에 의한 自己統制의 결과로 획득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Ⅲ. 統合의 心理學的 構造論

통합에 대한 심리학적 구조에 대해서는 정신분석학의 力動理論, 형태심리학의 全體論, 발달심리학의 生態理論 등이 각각 그 독자적인 시각에서 이를 해명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이론을 대표하는 학자들의 통합성에 관한 해석을 고찰하기로 한다.

1. Freud의 통합이론

Freud에 의한 성격구조는 id와 ego 및 superego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ego의 意識性과 主體性이 superego와 id, 게다가 외계라는 상반되는 방향성을 지닌 성격 영역을 통합하는 작용을 한다 (Hall & Lindzey, 1978).

ego의 통합작용을 논하기에 앞서, 이 세가지 영역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에 대해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발생적으로 말해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id이다. id의 미분화적인 충동성은 구속받지 않는 쾌락원리(pleasure principle)에 따르고, 맹목적인 쾌락추구적인 작용을 한다. 더구나 이 id의 가장 뚜렷한 특색의 하나는 무의식적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이며, 또 하나의 특색은 libido라고 불리는 강력한 에너지가 여기에 內藏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id에 있어서는 의식의 통제 밖에서 현실과는 무관하게 부당한 욕구를 끌어내게 되고 이것이 그 심적 에너지에 의해 지지되기 때문에, 이런 욕구에 대한 사회적 제약은 결국 파괴적 행동을 재촉하는 결과가 되기 쉽다.

이에 대해서 superego와 ego는 모두 이 id에서 파생한 것이며, id의 libido 충당을 받아서 그 힘(力)을 획득한 충동억제의 기능을 지닌 영역들이다. 특히 superego는 부모 자신이 가진 superego에서 계승한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한 것으로서, 그 기능도 자기감시·자기심판·自我理想이라는 외적 가치의 입장에서 자기비판적 역할을 한다. 더구나 ego와는 달라서 그 대부분이 무의식적 존재이며, 직접 id에서 libido를 받아서 충동만이 아니라 ego에 대해서도 엄격한 비난을 가한다. 즉, 외계로 향하는 id의 공격충동이 억제를 받으면 그 에너지는 모두 superego에 향하고, superego는 외적 대상에 대신하여 ego에 대해서 잔혹한 견책이나 공격을 가하게 된다. superego는 늘 良心의 役割로 자처하고는 있지만, 그 특색은 고정적이며 도덕적 행위라고 하기 보다는 신경증적 죄악감을 만드는 것이 되기 쉽다.

ego는 superego와 마찬가지로 id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그 작용은 성격이 小兒性을 벗어남에 따라서 외계의 현실을 받아들여 이에 적합한 형태로 id의 의도를 수행하려고 하는 데에 있다. ego는 의식적 존재로서 외계를 올바르게 인식함과 동시에 또 충동을 지배함으로써 이성적으로 id를 유도한다. ego는 “사고과정을 삼입함으로써, 그것은 운동을 통한 방출을 지연하고, 운동기능에 대한 출구를 지배한다”(上田吉一, 1993, p.147)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리하여 Freud의 주장에 따르면, 성격전체의 통합적 기능은 ego의 각 영역에 대한 조정작용에 힘입는 바가 가장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ego는 세계에 순응하는 형태를 취해서 id가 그 의도를 충족하도록 작용한다. 즉, 현실원리(reality principle)에 따른 자기에게 libido를 받아들여서, 그 의식적 통제하에 id의 충동만족을 이루려고 한다. 뿐만아니라 또 ego는 극단적인 superego의 명령에도 가담하지 않고, 理想보다도 현실적 기반 위에서 행동을 결정한다. 따라서, 자아는 id와 외계, id와 superego와의 조정자의 위치에 서서 전성격의 통일을 유지하려고 한다.

물론, 신경증 환자의 심리구조를 중심으로 理論化를 시도한 Freud는 ego를 id에서 libido의 충당을 받아들임으로써 성립하는 매우 弱少한 것으로 파악하여, 오히려 주체성은 ego가 아니라 id에 있는 것처럼 생각까지 한다. 그러나 역시 그의 이론에서도 統合의 核을 만드는 것은 의식적 존재로서의 ego 이외에서는 구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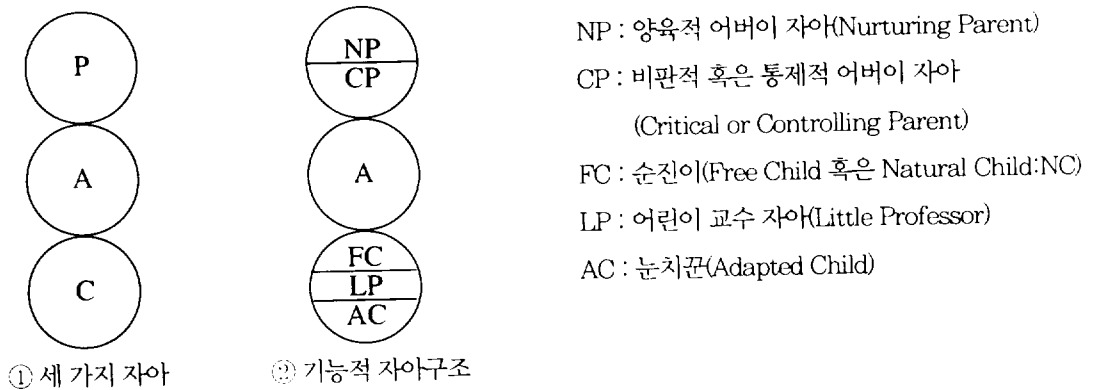
2. Berne의 통합이론

Berne(1910~1970)에 의하면 “자아상태(ego state)란 감정과 사고 및 그러한 것과 관련된 일련의 행동양식을 총합한 하나의 시스템”(伊藤隆二 編, 1984)이라고 정의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각각 분리된 특이한 행동의 원천이 되는 세 가지 자아상태가 있다는 것이다. 즉, 어버이 자아상태(Parent ego state: P)와 어른 자아상태(Adult ego state:A) 및 어린이 자아상태(Child ego state: C)가 바로 그것

이다. Freud와 같은 점은 Berne의 성격구조가 Freud의 superego와 ego 및 id 기능과 비슷한 P-A-C로 구성되고, A의 기능이 P와 C를 통합하는 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Freud와 다른 점은 각각의 자아상태는 그 안에 독특한 특성을 갖고 독자적인 기능을 독립적으로 발휘하는 독자적인 경계선을 가진다는 점이다(고명규, 1997).

먼저, A의 통합적 작용을 보기 전에, 각 P-A-C의 기능을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P란 자기를 길러 준 부모처럼 느끼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서, 도덕·엄격·책임감·비판정신과 같은 부성적(Father parent: FP)·비판적(CP)인 마음과 동정·보호와 같은 모성적(Mother Parent: MP)·양육적(NP)인 마음이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A는 어른 마음으로서 현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거나 정보를 수집하여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기능이다. C에는 세 가지 형태, 즉, 하나는 순진이(FC)로서 어떤 일이나 호기심을 품고 외계의 현실에 구애되는 일 없이 자유로운 발상으로 창조적인 면이 있지만, 때로 본능적·충동적·자기중심적으로 되기 쉽고, 또 하나는 이 FC가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부모나 주위의 영향을 받고 그 기대와 요구에 따르도록 수정된 결과인 눈치꾼(AC)이며, 또 다른 하나는 A의 축소판인 꼬마교수(Little professor: LP)로 칭하며, 직관력·창의력·조작능력의 원천이 되며, FC와 AC 두 개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이 세가지 자아상태와 기능적 자아구조에 대한 도식적 표현이 <그림Ⅲ-1>이다.



<그림Ⅲ-1> 자아상태

그런데 여기에서 P-A-C라는 세 가지 자아상태 중 한 자아상태가 상황의 요구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개인행동의 주요한 動力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에너지가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을 정도로 각 자아상태 간의 境界線이 半透性을 지녀야 한다. 그렇다는 것은 만일 개인의 P-A-C간의 경계선이 지나치게 이완된 경우나 지나치게 경직된 경우에는 부적응 행동과 연관된 자아기능 장애를 일으킨다. 즉, 前者의 경우에는 P나 C, 또는 P와 C가 동시에 A의 정상적인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汚

染(contamination)을 일으키고, 後者의 경우에는 심적 에너지의 이동이 불가능해짐으로써 자아상태들간의 보완적 관계를 잃고 한 자아상태가 배제되어 두 자아상태만 기능하는 경우(排除)와 한 자아상태만 비대해져서 두 자아상태가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肥大)인 排他(exclusion)상태가 일어난다.

따라서 이런 혼합이나 배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자아상태간에는 심적 에너지가 이동될 수 있을 정도로 적정수준의 滲透性이 있는 경계선이 유지됨과 동시에, 이 에너지의 분배의 책임이 있는 A의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말을 바꾸면 A에는 두 가지 조종기능 즉, 하나는 P에 기록된 자료의 진실여부와 현재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자료의 용납과 거부를 결정하는 기능과, 또 하나는 C에 기록된 감정이 현재 상황에서도 적절한 것인가 아니면 P의 낡은 자료에 대한 반응형식인가를 알아보는 검토기능(이형득 외, 1987)을 발휘함으로써, P-A-C를 때와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방출하는 지휘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 마디로, 혼합이나 배타와는 다른 형태로 C의 성질과 P의 성질이 A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Freud의 id · ego · superego간의 균형기능이 ego에 있는 것처럼, A가 바로 P-A-C의 통합기관인 것이다.

3. Lewin의 통합이론

Lewin(1952)은 성격의 발달과정에서 分化와 統合을 다루며, 특히 그 體制化의 구조를 topology 개념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명쾌히 설명하고 있다.

첫째, 幼兒의 행동은 하나의 자극에 대해서도 전신적인 반사, 즉 全體的行動(mass action)을 나타낸다.

그러나 유아는 성장함에 따라서 이와 같은 행동 면은 물론, 지적 측면에 대해서나 정서 및 사회성의 측면에 대해서도 分化가 일어나고, 욕구와 행동 · 공상과 현실 · 거짓과 진실 그리고 자기와 타인간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즉, 이는 각 영역간의 獨立性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Lewin은 이를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Si\ uni(ch) > Si\ uni(Ad)$$

여기서 Si uni (ch)는 아동의 성격의 統一도를 표시하고, Si uni (Ad)는 성인의 통일정도를 나타낸다.

둘째, 그러면, 도대체 어린이에 비해서 성인일수록 성격의 통일성은 낮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Lewin(1952)은 여기에서 성인의 행동의 다양성과 그 결과로서의 성격의 통일성의 저하를 구하는 것으로서, 성격의 階層的 體制化(hierarchical organization)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만일 행동 발달이 행동의 다양성만을 늘릴 뿐이라고 하면 개인의 행위는 점차로 혼돈한 것으로 되든가, 아니면 적어도 맥락을 잃는 것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명백히 그렇지 않다. 分化가 이루어지는 것과 평행해서, 다양한 부분이 하나의 單位行爲로 포섭되는 것과 같은 발달이 진행된다”(p.100)고, Lewin는 기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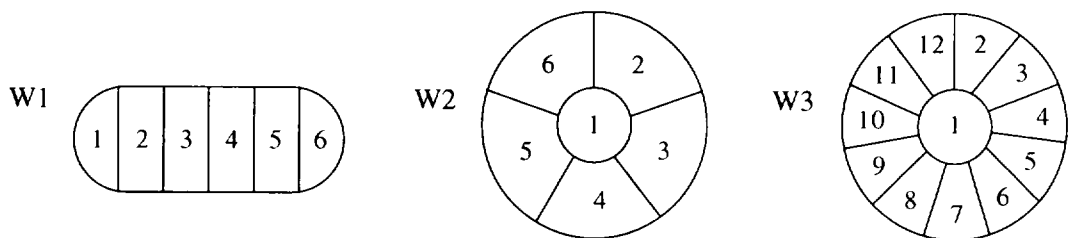
이리하여 Lewin은 다양한 성격영역간의 계층적 체제화의 實例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어린 아동이 바늘에 실(糸)을 꿰 경우, 근육은 비교적 이완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꿰수록 근육은 긴장해진다. 이것은 아직 성격의 분화가 불충분 즉, 강한 욕구를 지닌 내부 영역에서 운동영역으로 긴장이 퍼지기 때문인데, 이것은 오히려 목적에 적합한 근육동작을 방해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운동기능과 내부영역이 분화하고, 더구나 그러한 것이 體制화된 依存關係에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근육긴장은 일어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한 방식으로 특정한 筋肉群에 이완과 긴장이 일어난다. 그래서 비록 마음 속에서는 매우 긴장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실을 꿰기 위해서는 근육은 비교적 이완하고 있다. 또 역으로, 무거운 짐을 운반할 때에는 비록 그 일을 하기 위한 욕구가 적더라도, 근육긴장은 높아진다. 따라서 계층적 체제화란 각 영역이 분화하기 전의 단순한 통일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반대로 일단 분화를 이루고 (여기에서는 운동기능과 내부영역) 독립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서로 관련해서 보다 일층 고차적인 목적(여기에서는 바늘에 실을 꿰기와 무거운 짐을 운반하기)을 위해서 협력과 의존관계를 맺는 것에 있다고 Lewin은 주장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체제화는 단지 성격의 내부영역과 운동영역과의 사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영역 간에, 내부 영역에서의 욕구 간이나 목표 간에, 그리고 심리학적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구조의 계층적 체제는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강화하게 되며, 이것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hier org (ch) < hier org (Ad)가 된다.

여기서 hier org (ch)는 아동의 생활공간의 모든 영역의 계층적 체제의 정도를, 또 hier org (Ad)는 성인의 그것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Lewin은 성격의 발달이 분화를 촉진해서 그 통일의 정도를 저하시킨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계층적 체제화를 진행해 가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말해서 아동과 성인 간의 統一性의 정도에 增減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성격의 分化가 반드시 통일의 정도를 낮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構造如何에 따른다는 것은 그의 다음과 같은 topology 개념에 의한 설명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림 Ⅲ-2〉 성격의 분화와 통합구조

〈그림 Ⅲ-2〉에서 W1과 같은 전체구조 속에서 영역 1이 영역 2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영역을 나는 獨立度인, $indep | 1,2 |$ 를 초월하는 변화가 영역 1에 필요로 할 것이며, 영역 3에 영향주기 위해서는 다시 $indep | 1,3 |$ 을 초월하는 변화가 영역 1에 요구된다. 이리하여 영역 1이 이와 가장 먼 영역 6에게 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indep | 1,2 |$ $indep | 2,3 | \dots$ 의 總和인 $indep | 1,6 |$ 을 초월할 만큼의 변화가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W2와 같은 구조를 지닌 경우에 있어서는 영역수는 6영역으로 W1의 경우와 수는 같지만, 예컨대 5의 영역이 이와 가장 멀리 떨어진 3의 영역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1의 영역을 지날만큼 충분한 변화가 필요하며, 따라서 최소한 $indep | 1,3 |$ 의 변화만이 필요하게 된다. 만일 영역 간의 독립도가 동등하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당연히 $indep | 1,6 | > indep | 1,3 |$ 의 의미를 가지며,

통일성의 관점에서 이것을 표현하면,

$$uni(w1)=dep | 1,6 | < uni(W2)= dep | 1,3 | 이 된다.$$

그리고 다시, W2와 같은 구조를 가진 통일성은, 비록 분화가 진행하여 6의 영역이 8이 되고 12이 되더라도 변화하지 않는다. W3의 분화정도는 12로서, W2의 분화정도의 2배나 달함에도 불구하고, 쌍방의 통일성은 같은 정도로 그친다.

이와 같이, Lewin은 전체의 통일성이 각 영역의 독립정도와 분화정도에 따를 뿐만 아니라, 어떠한 구조를 갖는가에 따라서도 결정된다고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전체영역 가운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짐으로써 의존도가 낮은 두 영역, 예컨대 W2의 6과 3(이것은 두 step이 필요하다)은 전체중에 周邊的 層(peripheral region)을 형성하고, 영역 1처럼 비교적 적은 step(이것은 단지 한 step이다)으로 다른 영역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은 中心的인 領域(central region)이라고 부른다. 일정한 장소를 차지하는 위치에서 말하면, 중심적인 영역은 주변적인 영역보다도 상대적으로 세력이 있다. 그렇다는 것은 다른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는 데에 필요로 하는 영역의 영향력은 중심적인 영역일수록 비교적 적게 들여 해결되기 때문이다. 전체의 상태는 중심적인 영역의 상태에 비교적 많이 의존한다. 동시에 중심적 제영역은 전체에서의 모든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비교적 쉽게 영향을 받는다. 즉, 전체의 中樞로서, 전체의 상태에 민감하다.

Lewin은 통합성의 구조를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이런 구조를 성격에 적용했을 때, 고도의 통합성을 지닌 성격은 어떠한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示唆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성격은 분화를 이루면 이룰수록 성격전체를 통제하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中心的 層을 지니며, 이것을 中核으로 전체가 잘 조화와 균형을 가진 위계적 체제를 구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격이 효율성이 높은 작용을 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와 같은 성격구조가 요청하게 된다. Lewin(1952)은 “잘 체제화된 單位는 하나의 머리를 갖고, 둘 혹은 그 이상의 경쟁하

는 머리들(heads)을 갖지 않는全體이다. 實行器官(effector)이 指導領域의 誘導支配力에 따르지 않든가, 또는 쉽게 따르지 않을 때에는 體制崩壞(disorganization)라든가 統一性的 缺如로 일컬어진 다”(p.126)고 결론을 짓고 있다.

4. Allport의 통합이론

Allport(1937)는 성격심리학적 입장에서 성격을 階層構造로 이해하여 조건반사·습관·특성·自我(복수)·성격의 각 계층에서 하위수준의 통합이 상위수준의 성립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그는 統合의 過程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0개월 된 어린 꼬마는 방을 기어 돌아다니며 이따금 뜨거운 난방기(radiator)에 손을 대더니, 곧 손을 끌어당기며 이를 피하려고 한다. 다음부터 그는 난방기를 볼 뿐, 미리 손을 떼고, 그 표면에 손을 대고픈 마음을 억제하게 된다. 이것은 條件化의 간단한 實例이나, 동시에 統合의 基本形式도 나타나고 있다. 즉, 원래 회피행동과 어떤 관계가 없는 난방기에 대한 認知가 이제 이 회피행동과 완전히 일체화되고, 교묘한 機能體系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번 火傷을 입은 아동은 영구히 난방기에 접촉하기를 피하려고 하며, 통합의 재조건화나 강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Allport는 이와 같이 조건화의 수준에서 통합을 설명함과 동시에, 이것이 다시 습관·특성·자아 등의 수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시간과 더불어 '條件化'에 의해서 형성된 適應反應群은 習慣의 체계로 통합되고, 성격에 고유한 일정한 행동양식을 취하게 된다. 습관은 생활에 필요한 적응행동을 거의 기계적·자동적인 고정행동으로 변하게 하고, 餘力을 새로운 문제해결로 향하게 하며, 행동의 능률화를 가져온다. 이 습관이 다시 기능적으로 結束하게 되고 공통의 성격을 띠게 되면 '特性'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습관이 피상적·단편적인 행동양식인데 대해서, 일정한 생활태세라는 보다 基本的인 行動樣式을 의미한다. 예컨대, 사람에게 인사할 경우, 미소짓는 것, 기분 좋게 말을 듣는 것, 모르는 사람에게도 말을 거는 것과 같은 사회적 제습관이 하나의 통합된 행동경향으로 되면, 社會性이라는 特性이 만들어지게 된다.

다시 하나의 體系하에 이와 같은 수많은 특성이 통일하게 되고, 다른 환경에 따른 생활태도를 나타낼 때, 우리들은 이것을 '自己'라고 부른다. 자기는 꽤 포괄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더구나 사회적 상황의 특질에 따라서 다른 자기를 나타낸다는 의미에서는 많은 측면을 갖고 있다. 즉, 상황에 따라서 다른 얼굴을 보이게 한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性格'이 되면 가장 포괄적인 것이며, 각 개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존재이며, 또 사람의 모든 '특성'이나 '自己'라는 것에 대한 體制化된 統合體를 의미한다.

Allport는 대체로 이와 같이 성격의 위계적 체제의 통합적 성격을 설명함과 동시에, 또 이와 같은

성격의 통합성이 적응의 다양성을 결코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성이나 폭 넓은 知性과 공존할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한다.

Allport(1937)는 또, '人生哲學'이란 관점에서 統合性을 다음과 같이 논한다. 완전하게 통합에 이른 성격은 유일한 인생철학을 갖고, 여기에서 모든 태도·특성·개개의 행동이 일어나게 된다. 즉, 하나의 통제목표, 지배적 감정이라는 것이 바탕에서 작용하여 이것을 핵심으로, 인간의 행동이나 태도를 구축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통합의 중심에 종교나 예술을 두고, 그 가치추구적 특질을 강조한다. 진정한 宗教的 性格에 있어서는 심원한 종교적 경험이 그의 사상이나 바램의 초점으로서 계속 살고, 현세의 이익은 이 가장 포괄적인 세계관과 결합해서 개인을 무한한 풍부성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며, 또 藝術的 人間도 美라는 기본적 가치개념하에 모든 사실이나 현상이 집약하게 되고, 여기에서 美의 본질을 끌어내려고 할 것이다. 어쨌든, 자기의 중심적인 생활의 기반에 따라서, 각각 개성있는 인간이 형성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Allport는 이와 같이 논한 후, 다시 Spranger의 '生活形式'(정인석, 1992)을 인용하여, 개인에게 통합의 중심을 주는 것은 종교나 예술에만 한정하지 않고 기타 많은 문화영역이 고려된다고 하여 理論的 人間·經濟的 人間·社會的 人間·政治的 人間의 존재도 지적한다. Allport는 물론 Spranger가 열거한 인간의 존재양식이 완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역시 통합적 성격을 이해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앞으로 세밀한 연구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Allport는 또 性格의 統合性이 활동에 대한 의욕 속에서 싹트고, 끊임없이 과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형성된다는 것도 강조한다. 즉, 指導像(guiding image)이라든가 自我理想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努力目標가 되어 이것이 끊임없이 개인의 에너지를 모으고, 습득하지 않으면 안되는 技能을 정하고, 그 후 그의 행동을 검토해 가는 基準을 결정하는데, 이와 같은 지도상에 도달하려고 개인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우리고 있는 모습 속에 참된 통합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는 통합성이 목표에 도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향해서 힘(力)을 기우리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포착된다고 생각한다. 비유해서 말하면, 단지 상식을 쌓기 보다는 학문에 정열을 쏟는다는 쪽이 인간을 통합하는 힘이 큰 것이다. 창작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 작품을 완성해 버린 사람보다도 더 통합적인 사람인 것이다.

Allport(1955)는 통합성에 관한 이와 같은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종래의 緊張解除理論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비판한다. 일반적으로 動機는 긴장상태로서, 이는 필연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평형·휴식·적응·만족을 구하도록 이끈다고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성격은 이와 같은 긴장해소방식으로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自我追求(propriate striving)'라고도 불러야 할 緊張持續의 作用이 끊임없는 활동의 동기가 되고, 성격을 통일로 향하게 한다. 이런 意慾이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개인에게 장기적 목표를 주며, 안이한 現實滿足보다도 變化와 前進를 선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Allport의 이와 같은 통합성에 관한 이론에서는, 단지 성격을 구조론적으로 해명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긴장 혹은 에너지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역동적인 설명도 시도한 점에서 斬新性을 찾을 수 있다.

5. Baldwin의 통합이론

발달심리학자인 Baldwin(1955)은 認知에 관한 풍부한 실험과 구체적인 관찰에서, 심리학적인 統合作用을 설명한다. 그는 먼저 통합적인 작용이 對象의 認知에 恒常性を 준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논한다. 어머니가 수일간 幼兒를 맡기고 외출하면, 2세밖에 안된 幼兒는 어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미소로 맞아들이지 않고 마치 낯선 사람과 대하는 것과 같은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일이 많다. 아동은 어머니라는 대상이 눈앞에 존재하고, 이것을 언제나 인지하고 있는 한에서만 實在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잠깐 모습을 감추면, 그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Piaget에 의한 운동감각기에서 획득되는 대상연속성 개념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런데, 成人은 이와 같은 심리와는 전혀 다르다. 성인은 비록 그 녀(어머니)가 눈앞에 있을 때나 집에 없어 외출하고 있을 때나 그녀의 實在를 의심하는 일은 없다. 그녀가 보통 옷을 입고 있는 모습과 evening dress를 입고 있는 모습을 同一人으로 이해하며, 잘못 보는 일은 드물다. 또 집 근처에서의 모습과 공원에서의 모습 및 멀리 여행지에서 보는 겉모습은 언제나 그녀이다. 즉, 성인에게 있어서는 인지의 대상을 時間的 繼續性を 지닌 恒常的 存在로서, 또 그가 놓여진 상황(situation)과는 따로 떼어 낼 수 있는 獨立的 存在로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인의 인식과정에서 볼 수 있는 統覺的作用 속에서, 分化和 함께 統合的作用을 인정할 수 있다.

Baldwin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크기의 恒常性を 一例로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눈의 網膜上에 있는 對象像은, 대상의 크기와 망막에서 그 대상까지의 거리에 의존한다. 따라서 대상의 크기가 동일한 한, 가까운 대상일수록 당연히 크게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리가 가깝거나 멀어도 같은 크기의 대상은 같게 보이는데, 이것은 눈의 망막상의 對象像이 크기를 판정하는 유일한 기초가 아니란 것을 나타낸다. 거리여하에 불구하고 대상의 크기를 정확히 인식하는 이와 같은 현상을 크기의 恒常性(size constancy)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야말로 統合作用의 結果이며, 幼兒나 정신병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인식과정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Baldwin은 다시 이 크기의 항상성이 발달심리학적으로 어떠한 年令的 推移를 나타내는가를 실험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즉, 직경 100mm 접시를 1m 거리에서 이것을 보는 것을 標準으로 하고, 이와 비교할 각 접시가 여러 가지 거리에서 표준과 같은 크기로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測定法이 필요한가를 각 연령에 대해서 측정한 것이다. 그 결과는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거리와 관계없이 표준과 같은 100mm의 접시를 동일하다고 판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크기의 항상성이 성립됨을 알 수 있었다. 더

욱 주목할 점은 이 실험에서 가장 연령이 낮은 幼兒에서까지 상당한 恒常性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2세아는 1m 앞에 있는 180mm 접시를 1m 앞의 100mm의 그것과 같다고 보았는데, 만일 幼兒에게 恒常성의 機構가 전혀 없고, 크기의 판단이 망막상의 像만을 반영한다고 하면 11배 정도의 거리에 있는 접시는 다시 커다란 직경이 필요하며 이론적으로는 11배에 이르는 1100mm 직경을 가진 접시가 필요한 셈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와 같은 약간의 변동에 그치는 것은, 幼兒에 있어서도 이미 이와 같은 統合의 作用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Baldwin은 생각한다.

그는 이와 같은 恒常성의 작용이 물리적 지각면 뿐만 아니라, 社會的 知覺側面에서도 인정된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아동이 아직 충분한 사회적 성숙을 이루고 있지 않을 경우, 아동의 질문에 어머니가 만족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이따금 그녀가 그때 매우 주의깊게 과자가 불에 그을러 탄 상태를 관찰하고 있어 대답해 주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숨기고 있다고 해서 그녀를 비난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아동이 이미 꽤 사회적 성숙을 이루고 있을 경우에는, 그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그녀의 성격에 대해 항상적인 인식을 계속 가지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 그녀의 행위를 외견상만으로 이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즉, 성숙한 사람일수록 성격 그 자체가 가진 恒常的인 特質을 상황의 압력과 별개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언제나 항상적인 특질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認知者의 統合적 기능의 健全한 作用을 입증하는 것이다.

Baldwin은 이러한 주장과 함께 價値認識의 恒常性 問題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즉,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대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대상에 본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공간적 조건이나 그 개인에서의 특수한 利害關係이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보다는 신변에 있는 대상의 가치가 그 본질적·恒常적 가치는 어떻든, 개인에게 있어서 강렬하다. 또 일반적 가치보다도 개인의 특정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의 가치가 당사자에게 높게 평가되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일년 후의 입학시험준비 보다는 내일의 연극준비 쪽이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항일 것이며, 특정한 제작품의 평가에 대해서도 일반 사람들의 세평보다는 현실에서 그 評定을 하는 심사위원의 견해가 중요시된다. 그러나 충분히 성숙을 이루고 統合性과 一貫性을 지닌 성격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附隨的 要素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의 고유한 가치를 언제나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고, 다른 사정에 의해서 이것이 왜곡되는 일은 없다고, Baldwin은 말한다.

이를 要約하면, Baldwin은 성격의 統合性을 물리적·사회적·가치적 인지의 一貫性·同一性(identity)이라는 견지에서 파악하고 있다.

6. Lecky의 통합이론

Lecky(1945)는 Pavlov의 조건반사설이나 연합심리학의 이론이 성격을 자극에 대한 반응의 체계

로서 이해하고 있고, Freud와 動力學說 역시 성격을 과거경험이나 갈등해결이라는 因果關係에서만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 이 둘을 모두 비판하여, 그의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즉, “인간은 힘(力)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계이며, 그 장래를 과거의 행동을 기록한 것에서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사람은 살아 있는 한 하나의 單位이며 전체로서 작용하는 하나의 體系이기 때문에, 그 행동은 반응보다도 行爲 즉, 目的에 의해서 이해된다고 생각하고 싶다.”(P.151). 또 “有機體는 어느 것이나 살아있는 한 언제나 活動的이고 또 目的的이다. 生命과 活動은 공존하는 것이며,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Lecky, 1945, P.151)는 것이다. 요컨대, Lecky는 성격이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동이나 태도를 통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개인의 유일한 目的 혹은 意圖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결정적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Lecky(1945)는 또 목적을 중심으로 하는 이와 같은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의 통합적 기능을 성격의 基本的原理라고 생각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들은 모든 심리학적 현상이 통일성 혹은 自己一貫性이라는 단일한 원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격은 서로 일관한다고 느끼는 모든 가치가 체제화된 것이라고 생각되며, 행동은 그 체제의 통합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노력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P.152). 즉, 그에 의하면 모든 행동은 통일성을 구하는 욕구에 의해서 동기화되며, 또 이런 욕구의 구체적 표현에 불과하다. 변화하는 상황은 언제나 새로운 적응문제를 내포하지만, 행동은 모두 어떤 하나의 방향을 지향하며, 그것은 통일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Freud는 성적 본능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역으로 성적 동기나 기타의 동기도 모두 궁극적으로는 통합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 체제화되고 있는 가치의 체계는 행동을 규제하며, 그의 인생에서의 역할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유지할 책임을 느끼게 한다. 그의 가치기준은 개개의 행위로 표현하게 되는데, 예컨대, 이 역할과 일치된 행동을 취하여, 만일 과학자로서 자인하면 역시 이에 따른 행동양식이 취해진다. 반대로, 자기가 그와 같은 역할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는 이에 대응하는 행동은 취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은 될 수 있는 한 外界의 經驗과 일치하는 解釋을 함과 동시에, 자기의 내적인 가치기준과 조화를 유지하는 행동체계를 형성하도록 그 견해를 통일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격은 어떠한 작용을 할 것인가가 課題가 된다. 성격의 통일과정과 관한 그의 견해의 특색은, 통합이 갈등의 해결을 통해서 달성된다고 하기 보다는 우세한 행동경향이 열세한 경향에 대한 同化를 통해서 달성된다는 점에서 볼 수 있다. 예컨대, 어린이일 때에 피마자기름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어, 이것이 연상되어 오렌지쥬스를 마실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에 있어서 물론 오렌지쥬스는 받아들릴 경향을 끌어일으키고, 피마자기름은 거부적 경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직접 그것이 분열이나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오렌지쥬스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피마자 기름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아니면 피마자 기름에 대해서 오렌지쥬스

와 같은 행동을 나타내거나 어느 것인가에 통일하게 된다. 한번 우세한 경향에 의해서 同化하게 되면 오렌지주스도 마치 피마자 기름과 같고, 혹은 피마자기름도 오렌지주스와 같게 반응하여, 성격의 통일은 유지된다. 만일 성격에 있어서 이와 같은 同化가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이것을 회피하여 적극적으로 同化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성격내의 신경증적 분열을 가져오는 일은 없다. 어쨌든, 성격은 자기의 基本的 傾向에 대해서 異質的인 行動傾向을 同化하든가 아니면 회피하든가에 따라서 그 統一성을 維持하려고 한다고, Lecky는 설명한다.

IV. 示唆된 統合된 性格의 特性

지금까지 대표적인 학자에 의한 성격의 통합이론을 소개하고, 각각 그들이 보는 견해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들 통합이론들 간에서 시사하는 통합된 성격이 나타내는 共通된 特性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통합된 성격에는 통합의 중심이 있고, 이것을 中核으로 모든 특성·능력·태도·행동 등이 통일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성격전체는 하나의 統制機能을 가진 核을 軸으로 해서 均衡과 調和가 이루어짐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中心을 自我라고 생각해도 될 것이며 혹은 또 '主體'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어쨌든 이것이 충분히 強力하여 그 영향이 그의 구체적 행동이나 태도에 미치고 있는지, 아니면 행동이나 태도가 전혀 통일되지 않게 표현되고 있는지, 이것이 곧 성격의 통합성을 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둘째, 통합된 성격에 있어서는 욕구·충동·감정으로 부르는 성격기능과 의식·이성·지성으로 부르는 성격기능과의 사이에, 또는 理想·의무의식과 현실의식과의 사이에 극단적인 분열이 없고, 상대적으로 合一이 이루어짐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성격의 보다 생물학적·情緒的 측면과 精神的 측면이 정면에서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浸透하고 서로 補充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욕구·충동은 의식의 영역을 결정해서 언제 어떠한 곳에서 理性을 작용해야 할 것인가를 규정할 것이다. 한편, 이성이나 知性은 욕구·충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그 강력한 에너지를 바람직한 행동으로 돌려 쓸 것이다. 이와 같이 성격의 統合的 機能은, 이런 兩 機能을 對立·抗爭의 관계에서 조화와 협력의 관계로 향하게 한다.

셋째, 통합된 성격은 성격 에너지를 가장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構造를 가진다는 점이다.

성격기능간에 극단적인 대립이 없고, 따라서 그 작용이 모두 동일한 방향을 지향하기 때문에, 양 기능간의 대립에서 초래하는 에너지 損耗를 볼 수 없어, 그 에너지는 모두 외계의 創造的 行動으로 활용된다. 통합된 성격에 있어서는 성격 내외의 과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전성격적인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동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에는 효력이 없음이 없다.

넷째, 성격이 통합적이란 자아정체감이란 경험을 통해서 인식된다는 점이다.

자아정체감(self-identity)이란 세 가지 속성, 즉 자신은 타인과는 다른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인식인 個別性, 자신의 욕구 · 태도 · 행동양식 등이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느낌인 總體性, 자신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도 동일한 사람이라는 인식인 繼續性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통합된 성격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경험이 매우 명확하게 파악된다. 사람이 외계를 인식하는 것은 統覺(apperception)으로도 칭해지는 精神的 構成力인데, 이것이 다양한 경험 속에서 통일원리를 끌어내고 고유한 심리학적 세계를 체제화한다. 통합된 성격에서는 언제나 이와 같은 內的 構成力이 자각되고 존중되며, 이것이 개인의 모든 인식이나 행동의 準據틀(frame of reference)이 된다. 따라서 그런 성격에는 전체로서 통일성과 일관성이 유지된다. 통합되지 않는 성격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具體的 構成力은 존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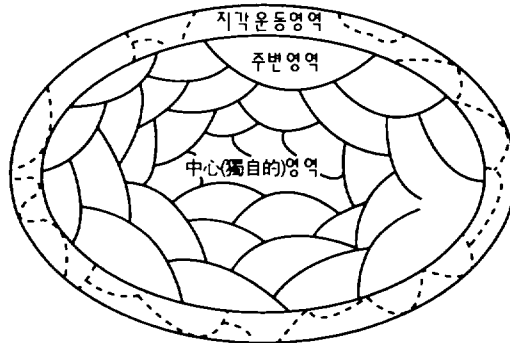
다섯째, 통합된 성격은 求心力이 강한 構造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기술한 것처럼 통합된 성격에는 그 中軸이 되는 것이 존재하여, 단지 성격내의 諸機能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가 경험하는 모든 外的 事象에 대해서도 이것을 자기의 준거체제 하에 통일하고 독자적인 견해, 개성있는 세계관 · 인생관을 확립한다. 통합된 성격은 결코 外的 事象을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왜곡하는 일은 없지만, 다만 이것을 자기와의 의미연관이 없는 사실로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통일적인 의미해석을 끌어낼 수 있는 형태로 파악한다. 따라서 그의 견해는 명쾌하고 그의 주장은 확고하며, 더구나 언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나 그 관점은 일관성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통합된 성격은 그 중심이 될 自我를 외계에 뚜렷하게 擴張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광범위한 外的 事象을 자아의 속에 集約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와 같이 개인의 성격과 개성(individuality)을 형성하는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개인의 어떤 목적추구의 주체적 능동성과 행동의 주체를 관장하며, 정의적 · 인지적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약간 검토기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성격의 통합이론에서 시사된 것 처럼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설명되는 自我를 假定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즉, 이미 본 것처럼 Freud는 id, 양심, 현실의 요구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집행적 역할을 하는 것을

ego로 보았고, Berne 역시 본능적·직관적·순응적인 C인 '느끼는 나(felt concept of life)'와 권위적·비판적·보호적인 P인 '가르침 받은 나(taught concept of life)'를 때와 장소에 따라 그 방출을 調節하는 것은, 논리적·합리적·타산적인 A인 '생각하는 나(thought concept of life)'로 본다. 지지하는 바와 같이 Lewin의 場理論에 의하면 성격구조는 이질적이며 분리되어 있으나 서로 소통하며 의존적인 외층과 내층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윤희준, 1997; 김성남, 1984; Hall & Lindzey, 1978). 큰 원 속에 하나의 同心圓을 그림으로써 두 부분 즉, 외층인 직접 환경과 접촉하는 바깥 부분으로서 자극을 감수하고 환경에 작용하는 운동을 맡아 하는 지각적-운동적 영역(perceptual-motor region)과 내층인 환경보다 오히려 개인 내부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내적-개인적 영역(inner-personal region)으로 나뉜다. 이 내층은 다시 순응적·유동적인 지각-운동영역 바로 밑에 이 영역보다 견고하게 구조화된 여러 습관과 흥미·태도 등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내적 주변영역(peripheral region)과 자아관여(self-interest)가 된 고유한(독자적) 체계가 있는 중심영역(central region)으로 나뉜다.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 이 중심영역이 행동을 비교적 일관성있게 강력하게 이끌어 가는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경향성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自我에 해당된다고 하겠다(그림 IV-1 참조)



〈그림IV-1〉 Lewin에 의한 성격구조

Allport는 성격의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하고 일관성있게 만드는 개념으로 자기, 특히 固有自我(proprium)를 사용하며(홍숙기 역, 1987), Lecky는 '自己-貫性(self-consistency)'이란 개념으로 代用한다.

그러나 이 多義的인 自我는 '自我關與(ego-involvement)'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데서 共通點을 찾을 수 있다. 이 사실은 개인의 행동이 自我가 중심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 심한 행동의 차이가 있다든가, 또 사람이 어떤 의미관계와 이해관계의 有無에 따라 행동이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데서 이를 잘 입증해 준다. 즉, 자아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사고·판단·행동 등이 무책임하지 않고,

自我가 능동적인 主體로서 또는 客體로서, 目的追求者로서, 優越欲望者로서, 行動體系者로서, 문화의 주관적 조직체로서 행동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은 모두 自我關與의 樣相을 여러 측면에서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V. 結 論

이상의 고찰을 통해서 통합된 성격이란 자아의 통일적인 기능하에 고도로 역동적인 체제화가 이루어지는 효율성이 높은 성격이라 定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여러 행동체계를 통제하는 하나의 지배적인 경향과 선택능력 및 시간적 통찰을 통한 욕구 억제력이란 일반적 속성이 내포된다. 따라서 이러한 속성들을 논하는 성격통합에 대한 심리학적 구조론들에서 밝혀진 공통적인 성질을 제시하면, 다음 다섯가지로 요약·정리할 수 있다. 즉, 그것은

첫째, 통합된 성격에는 모든 특성과 태도 및 행동 등을 통일시키는 중심이 있다.

둘째, 통합된 성격은 생물학적·정의적 기능과 인지적 기능간에 균형 즉, 상대적인 일치가 이루어진다.

셋째, 통합된 성격은 성격 에너지를 가장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닌다.

넷째, 통합된 성격은 자아 정체감이란 경험이 지속된다.

다섯째, 그것은 구심성이 강한 구조이다.

이런 특성에서 암시하는 바와 같이, 성격 내부에 이런 통합작용이 강력한 인간일수록 어떤 정신장애를 겪는 일이 없고 모순과 갈등을 보다 잘 견딜 수 있는 건강한 성격의 소유자라 지칭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심신기능이 충분히 작용하고 독자적인 개성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常軌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外的 現實과의 連繫를 유지할 수 있지 않으면 안된다. 말을 바꾸면, 여러 반응체계를 서로 조종하고 통합하는 주체의 강력한 통제기능만을 발휘한다면, 현실의식 혹은 사회적 의식이 상실하기 쉽다는 것이다. 즉, 현실과의 접촉을 잃으면 自閉的 性格이 되고, 외계와의 원만한 적응을 결하기 쉬운 問題點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건강한 인간이란 “현실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성격의 통합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인간”(上田吉一, 1993, P.66)이라는 定義는 매우 깊게 吟味할 가치가 있다. 한 마디로, ‘성격의 통합’과 ‘현실과의 연계’라는 이 두 課題가 모두 충족되는 곳에, 아니, 그것이 극한까지 실현되는 곳에 진정한 健康人의 極致가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 고명규(1997). 의사교류분석적 상담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학생생활연구, 제18집,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남성(1989). 교육심리학, 서울 : 교육과학사.
- 윤희준(1977). 인성심리 입문, 서울 : 교육출판사.
- 이형득 외(1987). 상담의 이론적 접근, 서울 : 형성출판사.
- 정인석(1992). 신 교육심리학, 서울 : 대왕사.
- 홍기숙(역)(1987). 성격심리학, 서울 : 박영사.
- Allport, G.W.(1937). Personality :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Y : Holt.
- (1955). Becoming : Basic considerations for a psychology of personality, New Haven, Conn. : Yale university press, PP. 41~56.
- Baldwin, A.L.(1955). Behavior and development in childhood, N.Y. : Dryden Press.
- Good, C.V.(1945). Dictionary of education, N.Y. : McGraw-Hill.
- Hall, C.S., & Lindzey, G.(1978). Theories of personality, 3rd.ed.N.Y. : John Wiley & Sons.
- Klein, D.B.(1944). Mental hygiene : The Psychology of personal adjustment, N.Y. : Holt.
- Lecky, P.(1945). Self-consistency : A theory of personality, N.Y. : The Shoe String Press.
- Lewin, K.(1952). Field theory in social science, London : Tavistock Publication.
- Monroe, W.S.(1950). Encyc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N.Y. : Macmillan.
- Shaffer, L.F.(1936). The psychology of adjustment, Boston : Houghton Mifflin.
- 上田吉一(1993). 精神的に健康な人間, 日本 : 川島書店.
- 鈴木乙史 외 (編) (1985). 性格の心理, 日本 : 福村出版.
- 伊藤隆二 (編) (1994). 心理治療法ハンドブック, 日本 : 福村出版.

<abstract>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an integrated personality

Ko, Myoung-Kyou

A healthy man is conducted by his integrated personality. Despite the agreement upon this fact, those who study personality do not agree on how to unify various psychological elements which dynamically interact personality.

Thus, my study objective is to analyze and consider the main personality integration theories, and to pick up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an integrated personal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different integration theories about the psychological structure of personality as developed by Freud, Berne, Lewin, Allport, Baldwin, Lecky, etc. The common views shared in these studies up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an integrated personality will be presented in depth, and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n integrated personality has a center which unifies all the characteristics, attitudes, behaviors, etc.
2. An integrated personality is a balance between the physiological, affective function and the cognitive function; that is, a relative congruence.
3. An integrated personality has a structure which economically uses the personality energy.
4. An integrated personality preserves ego identity within itself.
5. An integrated personality is a structure which strongly holds centralism.